

# 논 타작물 재배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전남도,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향상 도모 37억원 투입...콩·옥수수 등 재배 농가 ha당 250만원 지원

전남도가 2022년 쌀 적정 생산을 통한 농업소득 증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이 2020년 종료됐다. 이후 2021년 전국의 벼 재배면적이 늘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상황이 야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평년 단위 면적당 수확량 기준으로 산출한 2022년산 국내 쌀 생산량과 예상 수요량을 감안해 적정 재배면적을 70만ha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재배면적이 73만2000ha

였기 때문에 올해 수급 균형을 위해 3만 2000ha가량 감축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37억원을 투입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나선다.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논콩 등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의 기계·장비를 경영체당 5억원까지 보조한다.

시·군의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시군별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부여해 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감축 실적에 따라 올해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하고, 농협에는 수확기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은 1ha 감축 시 40kg 기준 109포 수준이다.

실적 우수 시·군에는 도 공모사업 참여 시가점을 부여하고, 농가 수요가 많은 무인헬기, 농업용 드론 사업, 범용컴바인 사업을 우대 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며 "논콩, 옥수수, 연근 등 소득이 높은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지난해 논콩 소득은 10a당 108만8000원이다. 논벼 74만4000원보다 46%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섬 소멸 대응...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맞손'

### 섬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과 업무협약

섬·해양·농어촌 연구와 조사, 정책을 담당하는 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섬 소멸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신안 반월도 어업인 심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협약식은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우량 신

안군수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업무협약안 서명식을 시작으로 신안군의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사례 보고, 반월·박지도 트레킹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신안 반월·박지도에서 열렸다.

무엇보다 국내 섬과 해양, 농촌, 어촌 등을 연구·담당하는 3개 기관이 연구조사, 학술교류, 교육사업 등 서로 협력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섬 소멸 문제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학술대회를 오는 5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섬진강서 채란·부화한 어린 연어 북태평양으로 떠난다

### 구례 동방천에서 45만마리 방류

전남도가 지난 17일 구례 섬진강 동방천에서 연어 45만 마리를 풀어주는 제25회 섬진강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펼쳤다. <사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지난해 10~11월 섬진강으로 회귀한 어미 연어를 포획해 채란과 부화를 거쳐 성장시킨 어린 연어들이다.

특히 이번 방류는 '이식 온도저극 표지 방류' 연구로 생산한 연어 10만 마리를 포함하고 있어 연어 회유 경로와 계군 분석 등 연구의 일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식 온도저극 표지 방류는 연어 부화 시 사육수의 수온을 갑자기 변화시켜 표지하는 방법으로 이식에 특유의 표지를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방류 연어는 섬진강에서 약 40일간 적응을 거쳐 떠나면 북태평양 알래스카까지 간다. 이후 북태평양 해역에서 성장해 알을 낳기 위해 고향인 섬진강으로 되돌아와 산란하는 습성을 가진 대표회귀성 어종이다.



전남도는 17일 구례 섬진강 동방천에서 '25회 섬진강 어린 연어 방류' 행사를 열고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지난해 섬진강으로 회귀한 어미 연어를 포획하여 직접 채란, 부화, 성장 과정을 거친 어린 연어 45만 마리를 방류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어린 연어 969만 마리를 방류했다. 어미 연어 회귀량은 5196마리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방류량을 계속 확대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진강 생태계 지표생물인

연어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수산자원의 가치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겠다"며 "어린 연어 방류뿐만 아니라 황어, 다슬기 등 섬진강 토속 생물도 지속해서 방류해 내수면 자원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수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 즉석 조리 수산식품 발굴 지원 3개 제품...4월 8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유망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22년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간편식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증가로 편의성 중심의 즉석·동결식품, 밀키트 등 가공식품 소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같은 소비추세에 발맞춰 영세 수산가공업체의 활로 개척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3개 제품을 선발해 육성할 방침이다. 제품당 1억원을 지원해 전문가 컨설팅,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수산가공업체로서 수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을 가공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main.do) 공고란을 참고해 4월 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며 "다양한 가정간편식 개발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등 판로를 지속해서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 에너지 기업 64개사 대상 전남테크노파크 정보공유 행사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 에너지산업 기업협의회 64개사를 대상으로 3월 16일 나주 스페이스코워에서 정보공유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국내 풍력발전 분야 선두기업의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동향 보고, 풍력 부품 관련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 비즈니스 생태계의 핵심 키워드, 글로벌 트렌드인 ESG 경영의 필요성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협의회는 산·학·연·관 네트워크와 기업 간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매달 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농기원, 딸기 농사 철저한 육묘관리 당부

### 어미묘 정식 3월 중순 적기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 성공적인 딸기 농사를 위해서는 뿌리 감염병 차단과 연작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철저한 육묘관리를 당부했다.

22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축성재배용으로 총실한 자식묘(70일 이상)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미묘 정식을 3월 중순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정식을 마쳐야 한다.

지난해 토양전염성병인 탄저병과 시들음병 발생으로 딸기묘가 부족해 정식을 포기한 농가도 많

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뿌리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철저한 소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어미 묘 정식용 화분 등은 반드시 훈증 소독을 한 후 사용해야 하며, 하우스 내부소독은 바닥에 깔아둔 덮개나 배수로 등에 소독제를 충분히 뿌린 후 하우스를 밀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식용 어미 묘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농가에서 다년간 육묘했던 묘는 바이러스와 토양전염성병에 감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3~4년 주기로 어미 묘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상무매매(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6층, 7층 (140평)
- 시세 9억 → 급매 6억
- (보3천, 월 350만, 용 3억5)
- (리모델링완비, 모든업종가능, 사무실, 유흥)

문의. 010-6670-9800

## 커피(제과점) 급 임대

- 신창지구(중심가도로 접함)
- 1층 전용(38평)2칸
- (시설완비, 즉시입주, 시설비 40%인수)

문의. 010-4667-9820